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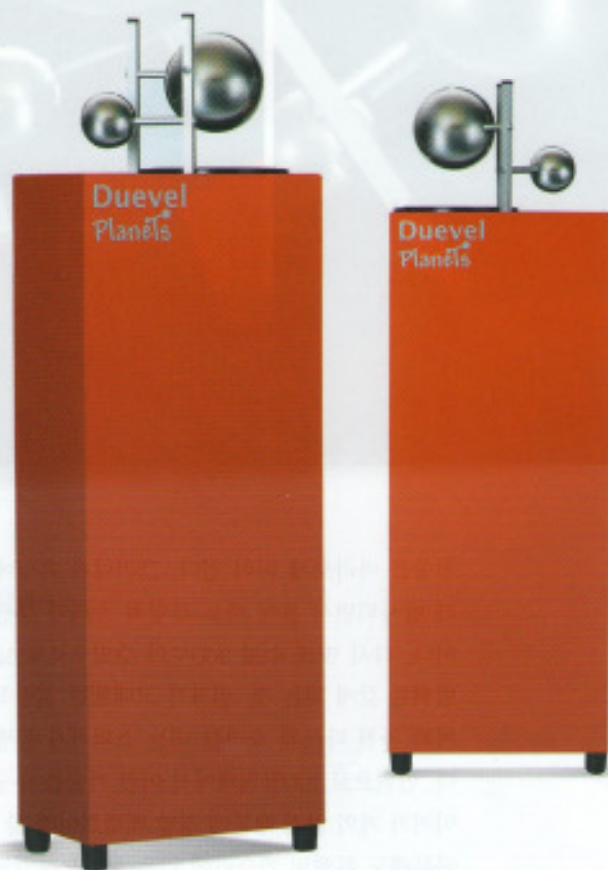
피아노 역시도 번짐이나 불투명함 없이 또렷도  
량한 맛을 잘 재생해준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플래닛츠가  
재현해내는 사운드 스테이지에 비하면 큰 장점이라 얘기할  
수 없다. 그만큼 인상적이고 이상적인 사운드 스테이지를 그  
래픽은 스피커라 할 수 없다.

## 천체에서 내려다 본 이상적 음악 세계

글 | 최성근

필자는 정말 많은 스피커를 접해본 것 같다. 사실 많은 스피커를 만나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즐거움이지만, 거기에는 많은 피로가 수반되었다는 것도 현실이다. 월간 오디오 필자로 활동하기 전에도 필자는 잦은 중고 거래로 정말 많은 물건을 사고팔고 나르고 설치하고 세팅했다. 소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밤을 새고, 밤을 새도 안 되면 H빔이나 다른 종류의 돌을 구하러 다니고, 그래도 안 되면 모든 것을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뭘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줬다. 이런 노력에도 안 되면 다시 중고 장터로 보냈다. 이런 작업을 무한 반복하다 보면 사회적 시간은 한참 모자란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진다. 낮과 밤 구분 없이 작업하고 무엇보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겨야 하니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정말 어쩔 땐 미쳐버릴 것 같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토록 원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모든 짜증은 사라진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이다. 한눈에 반해버린 그녀에게 사랑을 구걸하며 눈비 가리지 않고 한결같은 정성을 쏟아 그녀도 감격한 나머지 나를 흔쾌히 받아들였을 때 마음처럼 기쁘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무한 반복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사실 필자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원하는 소리를 찾았고, 시스템을 뒤집어엎어도 다시 그 소리를 찾을 수 있을 만큼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젠가부터는 음악이 좋아져 음악 듣기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은 나뉘어 버렸다. 리뷰를 위한 시스템, 음악을 듣기 위한 시스템으로, 그만큼 흥미롭다는 증거 아니겠는가? 어쨌든 오늘도 필자는 리뷰를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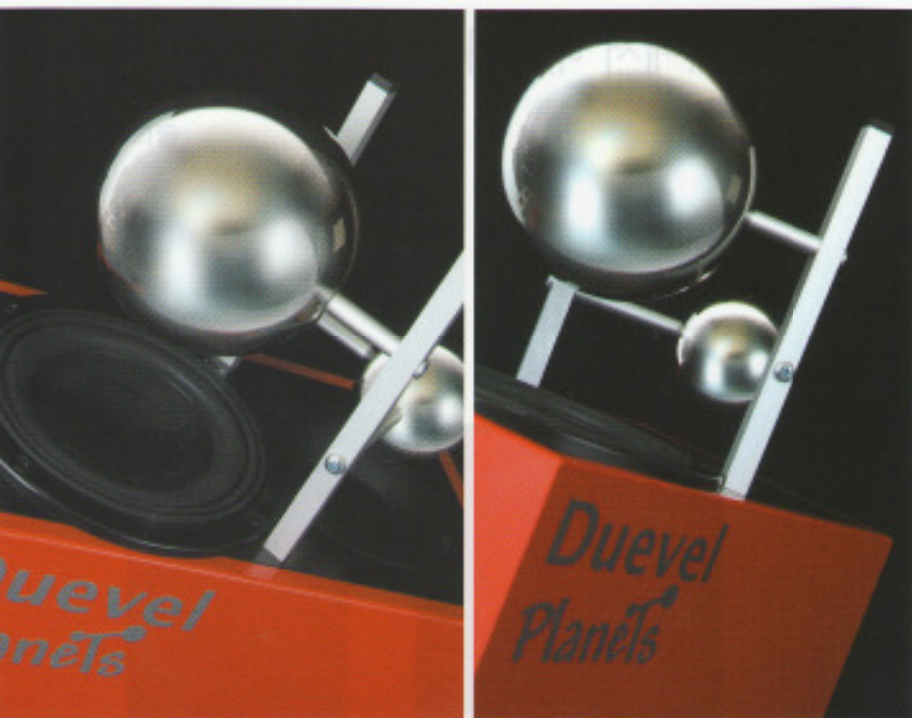
필자는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되었다. 단순히 돈 주고 사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필자로서 리뷰의 기회가 주어지니 좀더 특별한 제품을 선택해서 글을 쓰고 싶다는 것. 그래서 항상 본지 편집부에 특별한 것을 주문하곤 한다. 그리고 드디어 필자에게 듀벨 사의 플래닛츠가 날아왔다. 듀벨이란 메이커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독특한 설계 사상으로 무지향 스피커를 추구하는 이 메이커는 국내에 언제나 들어올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내에 무지향 스피커는 어렵다는 선입관이라도 있었는지 쉽게 만나볼 수 없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관련 검색어를 쳐볼 정도로 필자는 관심에 가득 차 있었다. 플래닛츠는 듀벨 사의 엔트리 모델이면서도 가장 인기있는 스피커이다. 그렇다면 플래닛츠로 이름 지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플래닛은 태양계 내에서 J. 케플러의 법칙과 I. 뉴턴의 법칙에 따라 타원궤도를 가지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스스로 핵융합 반응에 의해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고 태양빛을 반사하여 빛나는 천체를 말한다. 즉, 플래닛츠의 생김새를 보면 작고 큰 2개의 크롬 볼이 떠 있는데 이 형상을 가리켜 모델명으로 지은 것이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려면 유닛이 필요한데 유닛은 보이지 않고 2개의 크롬 볼만 떠 있는 걸까? 그것은 이 스피커가 무지향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스피커를 바로 세워놓았을 때 유닛들은



으로 무지향 스피커를 추구하는 이 메이커는 국내에 언제나 들어올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내에 무지향 스피커는 어렵다는 선입관이라도 있었는지 쉽게 만나볼 수 없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관련 검색어를 쳐볼 정도로 필자는 관심에 가득 차 있었다. 플래닛츠는 듀벨 사의 엔트리 모델이면서도 가장 인기있는 스피커이다. 그렇다면 플래닛츠로 이름 지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플래닛은 태양계 내에서 J. 케플러의 법칙과 I. 뉴턴의 법칙에 따라 타원궤도를 가지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스스로 핵융합 반응에 의해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고 태양빛을 반사하여 빛나는 천체를 말한다. 즉, 플래닛츠의 생김새를 보면 작고 큰 2개의 크롬 볼이 떠 있는데 이 형상을 가리켜 모델명으로 지은 것이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려면 유닛이 필요한데 유닛은 보이지 않고 2개의 크롬 볼만 떠 있는 걸까? 그것은 이 스피커가 무지향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스피커를 바로 세워놓았을 때 유닛들은

필자는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되었다. 단순히 돈 주고 사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필자로서 리뷰의 기회가 주어지니 좀더 특별한 제품을 선택해서 글을 쓰고 싶다는 것. 그래서 항상 본지 편집부에 특별한 것을 주문하곤 한다. 그리고 드디어 필자에게 듀벨 사의 플래닛츠가 날아왔다. 듀벨이란 메이커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독특한 설계 사상으로 무지향 스피커를 추구하는 이 메이커는 국내에 언제나 들어올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내에 무지향 스피커는 어렵다는 선입관이라도 있었는지 쉽게 만나볼 수 없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관련 검색어를 쳐볼 정도로 필자는 관심에 가득 차 있었다. 플래닛츠는 듀벨 사의 엔트리 모델이면서도 가장 인기있는 스피커이다. 그렇다면 플래닛츠로 이름 지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플래닛은 태양계 내에서 J. 케플러의 법칙과 I. 뉴턴의 법칙에 따라 타원궤도를 가지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스스로 핵융합 반응에 의해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고 태양빛을 반사하여 빛나는 천체를 말한다. 즉, 플래닛츠의 생김새를 보면 작고 큰 2개의 크롬 볼이 떠 있는데 이 형상을 가리켜 모델명으로 지은 것이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려면 유닛이 필요한데 유닛은 보이지 않고 2개의 크롬 볼만 떠 있는 걸까? 그것은 이 스피커가 무지향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스피커를 바로 세워놓았을 때 유닛들은

# Duevel Planets



천장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 그리니까 유닛에서 소리가 방사되면서 볼에 바로 부딪쳐 소리가 분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평 360도와 수직으로도 넓은 방사 범위를 갖게 되는 것. 필자가 고대했던 일반적인 스피커와 완전 다르게 소리를 내는 스피커가 듀벨 제품이다. 한편으로 100만원대에서 이런 기술을 추구하는 메이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아무래도 듀벨의 기술력에 많은 오디오파일들을 매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데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구조에서 좋은 소리를 뽑기 위해선 무수한 노력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우선 스피커의 유닛 구성을 보자. 플래닛츠는 2웨이 구조의 라우드 스피커이다. 트위터 하나와 미드우퍼로 구성된다. 미드우퍼는 8인치 크기로 큰 형이 아닌 역동형이다. 역동형으로 선택된 이유는 크롬 볼에 의해

소리가 무지향성으로 바뀌게 될 때 가장 이상적인 패턴으로 방사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우퍼가 천장을 바라보며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먼지가 앉아 있을 때 볼륨을 키우면 진동판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먼지들이 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현상이다. 다음으로 트위터를 보면 보통 스피커와 마찬가지로 1인치 크기의 진동판을 탑재한 유닛을 사용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혼 타입의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보통 2웨이 라우드 스피커에서 슷혼을 사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보다 깊은 혼 타입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유는 트위터에서 방사되는 소리의 에너지를 최대한 집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소리를 집중시켜 작은 크롬 볼에 부딪쳐 무지향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공중에 떠 있는 볼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며 최적의 위치를 찾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볼의 가공 기술도 완벽한 구의 형태에 가까워야만 일률적인 소리의 밸런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스피커는 능률이 조금 낮다. 아무래도 소리가 전방위로 퍼지다 보니 소리 에너지가 분산되어 능률이 낮게 측정되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 청음 공간에서는 능률이 낮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가 되는데 능률이 조금 낮은 또 하나의 이유는 조금 작은 크기의 2웨이 플로어 스탠드형 스피커이면서도 조금 더 낮은 저음을 내기 때문이다. 작은 크기지만 저음이 안 나 온다거나 하는 단점은 찾아볼 수 없다. 재미있는 것은 캐비닛의 크기가 작지만 거의 대부분을 내부 용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고, 2웨이 스피커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내부 용적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음



- 수입원 : MK엔터프라이즈 (02)715-4585
- 가격 : 169만원
  - 구성 : 2웨이 2스피커
  - 사용유닛 : 우퍼 15cm, 트위터 2.5cm
  - 임피던스 : 4Ω
  - 출력용입력별 : 85dB
  - 파워 핸들링 : 50W
  - 크기(WHD) : 26x83x15.6cm
  - 무게 : 10kg

사운드 스테이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펼쳐진다. 100만원대 스피커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 특히 이 정도 수준의 사운드 스테이지가 정교하게 세팅하지 않아도 펼쳐진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포커싱 역시 선명하게 펼쳐진다. 뿐만 아니라 포커싱의 정위감도 아주 훌륭하다. 이것은 잘 녹음된 재즈 트리로나 소편성 실내악을 들어보면 아주 잘 나타내준다.

의 덕트가 바로 아래쪽으로 뚫려 있어 미드우퍼의 진폭이 크게 움직일 때도 불필요한 배압 없이 원활하게 움직여 설계에 따라 좀더 나은 저음의 양감을 얻을 수 있다. 무게는 비교적 가벼운 10kg이지만 불필요한 볼륨은 억제되어 있다. 구동도 쉬운 편. 임피던스가 4Ω이므로 전원부 성능이 좋은 인비엠프나 파워 앰프라면 별 무리 없이 올릴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파워 핸들링이 50W(RMS)로 조금 작은 편이긴 하나 스펙과 다르게 소리 크기의 구애 없이 양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리는 어떨까. 필자는 여기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100만원대 스피커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소리 품질은 무엇일까? 바로 음장이다. 필자는 이것이 꼭 1,000만원대를 넘어서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 여겨왔다. 이것은 플래닛즈를 듣기 이전까지의 생각이었는데 플래닛즈를 듣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음악을 듣기 전에 스피커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다. 메이커 측에서는 미드우퍼를 안쪽으로 둔 상태에 듀벨 플래닛즈 로고가 보이도록 세팅을 권장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게도 똑같이 세팅할 수 있으며 취향에 따라 이를 달리해도 된다는 것이다. 우선 무대는 스피커와 뒷벽 사이에서 무대가 형성된다. 사운드 스테이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펼쳐진다. 100만원대 스피커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 특히 이 정도 수준의 사운드 스테이지가 정교하게 세팅하지 않아도 펼쳐진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포커싱 역시 선명하게 펼쳐진다. 뿐만 아니라 포커싱의 정위감도 아주 훌륭하다. 이것은 잘 녹음된 재즈 트리로나 소편성 실내악



을 들어보면 아주 잘 나타내준다. 특히 마음에 드는 것은 특별한 장르 구분 없이 잘 소화해 준다는 것으로 음색의 취향차를 떠나 누구나 매력적이라 느낄 수준이다. 클래식에 있어서도 아쉬움 없는 음색을 들려주는 것도 이 스피커의 장점. 현의 표현력은 아주 뛰어나지 않지만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묘한 뉘앙스로 표현해 준다. 여태까지의 스피커들이 아주 꺼끌꺼끌한 질감 표현에만 치중해 왔다면 플래닛즈는 아주 실직한 느낌으로 들려주기 때문이다. 피아노 역시도 번짐이나 불투명함 없이 또랑또랑한 맛을 잘 재생해준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플래닛즈가 재현해내는 사운드 스테이지에 비하면 큰 장점이라 얘기할 수 없다. 그만큼 인상적이고 이상적인 사운드 스테이지를 그려내는 스피커라 할 수 있다. **A**